

이제는 남구의 매력, 주체할 수 없다.

자치CEO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지금은 광주 남구의 시대이다.

최근 들어 남구는 도시의 매력을 마음껏 발산하는 중이다. 역사를 품고, 사람을 잇고, 다가오는 미래까지 담고 있어서다.

독자 여러분의 시선이 남구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지사일 겁니다.

가장 먼저 시선이 머물러야 할 곳이 있다.

구도심 백운광장이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천지개벽의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이다. 이곳은 남구의 관문이자 심장부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교통의 요충지였지만 이제는 사람 중심의 열린 공간으로 변모했다.

특히 백운광장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장소로 거듭났다. 광장은 만남과 약속의 장소로도, 이와 더불어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광장으로 탈바꿈했다.

백운광장 앞에서 단절된 푸른길 공원 산책로까지 연결되면서 백운광장은 빛고을 광주시민의 마음까지 사로잡는 랜

드마크로 자리잡았다.

어디 이쁜인가.

이곳 광장에는 스토리도 있다. 주변 골목에는 맛의 향기까지 넘쳐난다.

남구청사 정문 앞에 위치한 미디어월은 백운광장을 지나는 모든 시민들의 눈길을 한번에 사로잡는다. 매 시간마다 ‘어흥’하면서 울부짖는 백운호랑이부터 다양한 주제로 선보이는 고품질리티 동영상 콘텐츠까지 넘쳐난다.

전시작품과 공익광고, 가족사랑 편지, 구정 홍보 소식 등을 챙기는 재미도 쏠쏠하다.

이러한 것들이 눈과 귀를 즐겁게 한다면, 백운광장에서 곧바로 이어지는 스트리트 푸드존은 미각을 황홀케 한다.

각양각색의 세계 음식부터 손맛 가득한 분식, 뜨끈한 어묵 국물까지 먹거리 향연이다. 음식마다 이야기를 담았다. 누군가의 음식에는 청춘이 담긴 창업 스토리가 있고, 또 다른 가게에서 선보인 음식에는 동네 아이들의 웃음을 접시에 담았다.

남구의 소상공인들이 일군 이곳은 21만 남구 주민 뿐만 아니라 빛고을 광주시민, 외지 탐방객이 누리는 일상의 행복함과 정(情)까지 스며 들고 있다.

역사와 문화는 남구의 또 다른 자랑거리이다.

양림동은 타임머신을 타고 100년대를 훌쩍 뛰어 넘은 근현대사를 만끽할 수 있는 동네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선교 유적과 한옥의 곡선, 오래된 교회 종탑 소리까지 골목마다 다채로운 향기를 품고 있다.

카페와 갤러리, 작은 책방, 공방 등지에도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다. 양림동은 오래된 것도 ‘보물’이 되는 법을 보여준다.

밤이 되면 남구는 또 다른 얼굴로 깨어난다. 사직동은 남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관심을 모으는 곳이다. 그중에서도 빛의 타워는 대표적 상징물이다. 도심 야경이 혼을 쏙 빼앗아 가서다.

사직동에는 미래의 시간을 미리 밝히는 것도 있다. 2026년 초에 개관 예정인 시간우체국이다. 현재의 내가 미래의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내는 감성 콘텐츠 공간이다.

추억을 기록하고, 감정을 나누면서 사람의 마음까지 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남구만의 실험인 것이다.

지금, 남구에 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 역사와 문화가 있다. 그리고 사람과 시간이 있으며, 볼거리와 먹거리, 더불어 ‘머물고 싶은 이유’가 있다.

지금은 광주광역시 남구의 시대다.

독자투고

최근 카드 배송을 빙자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찰은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카드 배송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가짜 고객센터 번호로 유도하고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해 휴대폰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지른다. 이 과정에서 검찰,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기망과 협박이 이어져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여신금융협회 및 카드업계와 협력하여 전국적인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주요 수법 안내

1.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배송 안내 문자 발송
 2. 카드 배송원이 카드사 고객센터 번호를 알려준다면 가짜 번호 안내
 3. 전화를 걸면 카드사 직원 사칭범과 연결
 4. 휴대폰 원격제어 앱 설치 유도
 5. 설치 이후 금융정보 탈취 및 금전 요구
-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방법 및 행동 요령
1.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배송 연락은 의

심부터 하십시오. 카드사는 고객에게 먼저 카드 배송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2.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카드 뒷면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보이스피싱범은 가짜 고객센터 번호를 제공해 피해자를 유인합니다.

3. 문자메시지에 기업로고, 안심마크, 카카오톡 인증표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보이스피싱 메시지는 공식 로고나 인증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원격제어 앱 설치 요구는 무조건 거절하십시오. 카드사 및 공공기관은 절대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경찰 또한 이러한 예방 활동과 더불어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라디오 공익광고, 카드사 ARS 멘트, 팝업 및 문자 발송 등 다양한 채널로 보이스피싱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특히 60대 이상 여성 대상 맞춤형 안내 강화, 배송 시스템 점검 및 내부 통제 강화를 카드업계에 요청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의 경각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을 경우, 지체없이 112나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민영 <구례경찰 읍내파출소 순경>

식당 노쇼, 예의 아닌 범죄가 될 수 있다

독자투고

“예약은 해놓고 오지를 않네요. 하루 준비한 재료가 전부 버려졌습니다.”

지난 5월 중순, 전라남도 함평의 한 식당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다.

10명 단체 손님 예약을 받고 신선한 재료를 준비했지만, 손님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아무 설명도 없었다. 해당 식당은 하루치 매출을 날리는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노쇼(No-show)’는 단순한 약속 불이행이 아닌,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특히, 고의적으로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사례는 경우에 따라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나,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악의적 노쇼가 반복되거나, 허위 신원을 사용한 예약일 경우 수사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경쟁 식당을 방해하거나 개인적 감정으로 고의 노쇼를 일으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닌 명백한 범죄다. 피해자가 식당이라는 이유로 ‘참아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는 바뀌어야 한다.

우리 함평경찰은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노쇼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

전남 함평 지역에서도 올해 상반기만

해도 3건 이상의 노쇼 관련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일부는 고의성이 의심되어 수사에 착수했다.

노쇼는 “잠깐의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를 무너뜨릴 수 있는 행동이다. 식당 예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거래 계약이다.

예약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주시고, 부득이하게 취소할 경우 하루 전 또는 최소 몇 시간 전에는 연락을 주시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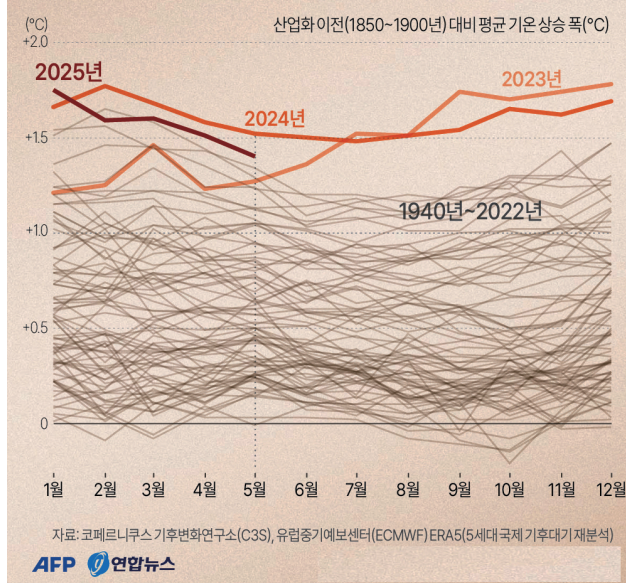
또한, 타인의 이름으로 허위 예약을 하거나, 반복적으로 예약 후 취소하는 행동은 본인도 모르게 범죄자가 될 수 있다.

함평경찰은 지역 자영업자의 피해를 막고, 선량한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기 및 업무방해 관련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다.

정충연 <함평경찰 청문감사인권계장 겸감>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지구촌 관측 이래 두번째 더운 5월 기록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

